

샴페인, 크레망, 까바, 스푸만테

직장인이 신어본 어글리 슈즈 '착화감 굿' 의외 장점에 매료



샴페인잔 /프랑스 샴페인 협회 사이트(www.champagne.fr)

“놔라. 어떻게 거품들을 삼켜내는 지. 어떻게 반짝거리고, 빛에 어른거리며 퐁퐁 튀어내는지. 그것을 혀 위에 잠시만 머무르게 해도 당신은 이것이 정말 특별한 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세 프랑스 시인인 장 보텔이 한 여관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고 말한 시음평이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입안에서 주는 감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늑늑한 한여름 더위에 떠오르는 와인은 그저 차갑게 반짝이는 스파클링 와인. 레드와인과 비교하면 빈티지도 없고, 스타일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정작 한 병을 고르는 쉽지가 않다.

“비슷한 가격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건 부르고뉴 크레망, 이 건 스페인 까바, 이 건 이탈리아 스푸만테예요. 그 가격대에서는 샴페인은 적당한 것이 없네요.”

와인 매니저의 말에 하마터면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라는 짜증이 나올 뻔했다.

일단 뽀글뽀글 기포가 있는 와인 전체를 통칭하는 말은 스파클링 와인이다.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처럼 쓰이

는 샴페인은 사실 조건이 까다롭다. 먼저 지역이다. 프랑스의 상파뉴(샴페인) 지방만 허락된다. 두 번째는 생산 방식이다.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만들어야 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동 페리뇽이 체계적으로 정립한 방식이다.

또 샴페인은 최소 18개월 이상 병 숙성을 의무로 정해놨다. 샴페인이란 명칭의 상징성도 있지만 만드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다른 스파클링 와인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샴페인은 전세계 스파클링 와인 소비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전통적인 방법이라도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다면 샴페인이 아닌 크레망이란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크레망 드 부르고뉴’처럼 말이다.

다른 나라에선 또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은 ‘까바’다. 까바도 샴페인이나 크레망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다.

이탈리아의 스파클링 와인은 ‘스푸만테’다.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기포가 생기는 2차 발효가 병이 아닌 탱크 안에서 일어난다. 기계적인 탱크로 통제할 수 있어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경제성도 뛰어나다. 국내에서 인기가 좋은 모스카토 다스티도 이 방식으로 만든다.

샴페인을 마시기 좋은 온도는 8~10도다. 여름이라고 더 차갑게 한다면 제대로 된 맛이 안 날 수도 있다. 또 생맥 주처럼 미리 차갑게 해놓은 잔에 따르는 것도 좋지 않다. 잔이 너무 차면 거품이 제대로 안 날 수 있다. 샴페인은 거품과 아로마가 충분히 발달될 수 있도록 키가 큰 툴립같은 잔으로 마시면 좋다.

/smahn1@metroseoul.co.kr

전자랜드 뷰티가전 인기... 판매량 133% UP

제품 성능 상향 평준화 판매량 견인
전자랜드는 올해 7월까지 뷰티가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랜드가 2017년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홈 뷰티기기 프라엘(Pra.L) 판매량은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LG전자 프라엘 판매량은 같은 해 상반기 보다 62%, 2019년 상반기는 2018년 하반기 대비 48% 신장했다.

또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성장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은 2018년 전체 판매량 보다 약 10% 많다.

전자랜드는 최근 뷰티가전 제품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피부과 등을 찾지 않고, 집에서 충분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부관리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자랜드는 고객들의 뷰티가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7월 25일부터 푸리글 로벌의 피부관리기기 ‘푸리스킨 LED



뷰티 가전을 보고 있는 고객들. /전자랜드

마스크’의 판매를 오프라인 유통채널 최초로 시작했다. 푸리스킨 LED 마스크는 타 제품 대비 비효율적인 케어에 투입되던 부분을 제거해 기능성과 가성비 높은 제품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스타벅스 DT존 사이렌 오더 최대 6km까지

정차 상태에서 안전하게 주문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가 또 한 단계 진화한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차량을 운전해 드라이브 스루(DT) 존을 이용하는 고객의 사이렌 오더 주문 가능 반경을 6km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스타벅스에서는 매장 이용 고객과 드라이브 스루 존 이용 고객 구분 없이, 고객의 위치에서 2km 반경 내의 매장에만 사이렌 오더 주문이 가능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존 이용 고객들이 출발 전 정차 상태에서 안전하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는 드라이브 스루 존 이용 고객에 한해 주문 가능 반경을 최대 6km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매장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에도 걱정 없이 신선한 품질의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SK 텔레콤의 T맵 내비게이션의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맞춰 메뉴를 제조하기



스타벅스가 드라이브 스루(DT) 존 사이렌 오더 주문 반경을 기존 2km에서 6km로 3배 확대한다.

/스타벅스커피

때문이다. 현재 스타벅스는 드라이브 스루 존을 이용하는 고객이 운전 중(시속 18km 이상)에 앱을 이용하는 경우, 운전 중에는 앱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노출시킴으로써 드라이브 스루 존 이용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트렌드 Pick!

뉴트로 열풍타고 새로운 트렌드 아웃도어 업계 새 먹거리로 각광



‘버킷 디워커 에어’ 블랙./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못생겼지만 예쁘다”는 말은 모순적이다. 그러나 이 모순이 패션 트렌드로 떠올랐다. ‘어글리 슈즈’가 바로 그 예다.

어글리 슈즈는 복고를 재해석한 뉴트로(New+Retro) 열풍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다. 톱패딩 일색이던 아웃도어·스포츠 시장에 어글리 슈즈가 새 먹거리로 떠오른 것은 그 인기를 짐작케 한다.

어글리 슈즈 특유의 투박함은 그 자체로 ‘멋’이 되어 1020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30대만 넘어가도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어글리 슈즈의 인기를 체감하긴 커녕 “그게 대체 뭐냐”는 반문만 돌아올 확률이 높다.

◆모순의 집합체...어글리 슈즈로 편견 깨기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기자 역시 패션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어글리 슈즈’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물론, 그 존재와 인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도전하기 쉬운 아이템도 아니었다. 하지만 신어보지 않고는 영영 그 매력을 알 수 없을 것 같아 도전해봤다.



버킷 디워커 에어. 에어 모멘트 매쉬가 적용돼 통기성이 우수하고, 도톰한 밑창이 키높이 효과를 준다. 뒷면에 3M 소재를 적용해 디테일한 포인트를 살린 한편, 야간 보행 시엔 반짝이도록 해 안정성을 높였다.

/김민서 기자

어글리 슈즈 입문용 아이템으로 선택한 것은 디스커버리의 ‘버킷 디워커’ 시리즈 제품이다. 리뷰용으로 택한 제품은 ‘버킷 디워커 에어’로, 어글리 슈즈 중에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주 언급되는 제품이자, 여름용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적합한 생각에서다.

일단 신어보니 의외의 점이 포착됐다. ▲무게 ▲통기성 ▲착화감 등에서다.

우선, 두툼하고 투박한 모양새와 달리 무게감이 전혀 없다. 기자는 평소 단화 등 낮은 신발을 주로 신는데, 무게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가볍다.

기자가 신어 본 ‘버킷 디워커 에어’는 타사 어글리 슈즈뿐만 아니라 같은 시리즈인 ‘버킷 디워커’ 라인 중에서도

가벼운 편이라고 한다. 290g의 초경량 제품으로, 기존 시리즈(350g)보다 60g 더 가볍다.

봉제를 최소화한 하이퍼 퓨즈 기법을 새롭게 반영해 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겨울에나 어울릴 법한 모양새지만 매쉬 원단이 적용돼 여름에도 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평이다. 제품 앞, 옆을 둘러싼 에어 모멘트 매쉬 덕분에 통기성이 높다.



에어 모멘트 매쉬가 적용된 버킷 디워커 에어. /김민서 기자

착화감은 생각 외로 괜찮다. 발바닥이 닿는 부분을 눌러보니 딱딱함이 느껴졌지만, 발 뒷꿈치 등 장시간 신었을 때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편안했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충격 완화 효과가 우수한 편이다.

◆“처음이 어렵지...”

사실, 기자의 눈에 어글리 슈즈는 활용도가 극히 낮은 아이템에 불과했다. 깔정장을 입고 다니진 않지만 직장인인 만큼 단정한 복장은 필수인 데다, 휴일에 신을 일도 드물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가장 큰 이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점 때문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나이와 신발 사이의 간극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일단 신기 시작하자 오피스룩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평소 스타일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편이지만, 단조로운 옷차림에 어글리 슈즈를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니 트렌디한 느낌이 가미됐다. 투박하지만 의외의 아기자기한 매력 있어 원피스 등에도 매치가 가능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잠깐의 머쓱함을 견디면 의외의 장점을 느껴볼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세에 편승해보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다.

/김민서 기자



디스커버리 ‘버킷 디워커 에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